

'열린 사찰' 시민 결의로

강연·문화체험·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다양 타종교인도 동참열기 "절 문턱 낮아졌다"

사찰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일반인들은 물론 타종교인까지 동참하면서 도량이 사회·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부 사찰에서는 '매니아'들까지 생겼다. 모두가 나름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했기 때문이다.

조계사와 정토회관, 강화 선원사와 부산 미륵사에서는 목사와 신부 등 타종교 지도자는 물론 작가, 학자, 재야운동가 등의 연사들이 종종 법단에 오른다. 환경, 문화, 통일, 경제 등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들 사찰의 강연회에서는 불자들이 타종교인,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강연을 청취하고 토론도 벌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계사(주지 지홍)의 '열린 강연회'에는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매니아'들이 줄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부 사찰에서는 '매니아'들까지 생겼다. 모두가 나름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했기 때문이다.

조계사와 정토회관, 강화 선원사와 부산 미륵사에서는 목사와 신부 등 타종교 지도자는 물론 작가, 학자, 재야운동가 등의 연사들이 종종 법단에 오른다. 환경, 문화, 통일, 경제 등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들 사찰의 강연회에서는 불자들이 타종교인,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강연을 청취하고 토론도 벌인다.

각종 문화 프로그램 역시 사찰을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다. 천안 불광사(주지 대일)에 들어서면 장구와 징, 풍과리, 북소리가 웅장하게 어우러져 나오는 민요가락을 들을 수 있다. 11년 전부터 운영돼 온 사물놀이패의 회원만도 현재 1천2백여명. 일반인과 타종교인이 30%에 이르지만 모두가 한 몸이 뜨겁다.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3월 대웅전 복원불사 성취를 위한 1000일 기도에 들어가면서 개신교 목사의 강연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1000일 기도 동안 100일마다 타종교 지도자와 환경운동가 등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성장했다. 통도사 부산포교인(주지 심산)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달 여는 '주제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에는 일반인들도 상당수 참여하는 등 인기가 높다.

각종 교양강좌나 수련회 등을 통해 사찰을 열어 놓은 곳들도 많다. 9년 전통의 부산 삼광사(주지 석수) '한글학교'는 이 지역 교양강좌의 단두대강이다. 600여명의 노인 학생 중 40% 이상이 일반인이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사찰측은 얘기한다. 서울 백련사(주지 월해) '한문서당' 역시 방학 때만 되면 다른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불린다.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의 '염불선 주발수련회' 역시 성별이나 종교,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포근한 수양처다. 광주, 진주, 마산 등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국JTS는 4월24일 몽골에 밀가루 36톤을 보냈다. JTS는 추후 가족사료와 의류등의 구호물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JTS, 몽골에 밀가루 36톤 지원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4월24일 부산 제일제당 부산공장서 추위와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는 몽골에 보내기 위해 밀가루 선적식을 가졌다.

한국JTS는 몽골 답사를 통해 몽골을 긴급구호 지역으로 정하고 먼저 36톤의 밀가루를 보내고 추후 가축사료와 의류 등 다른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몽골 주민은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으나 구호물품들이 주민들에게까지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JTS는 몽골 주민들에게 직접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차량, 통역인들을 구해 직접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법륜스님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량과 통역 가능 통역 자원봉사자가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JTS는 몽골에 의류나 밀가루, 가축사료 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후원을 기다린다. (02)587-8995

부산=천미희 기자

뉴스 & 뉴스

결식아동돕기 길상음악회

결식아동 후원을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는 부처님오신날인 11일 길상사에서 길상음악회를 개최한다. 결식아동이 함께 자리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고래사냥' '우리는'의 가수 송창식씨와 국악계 4인조 신세대그룹 '푸리(PURI)', 노영삼씨가 무대를 꾸민다. (02)3672-5945 도필선 기자

GMO 반대연대 12일 창립

GMO(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가 5월12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창립식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단체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삼일대표도법)가 주도가 되어 한살림, 농어촌사회연구소, 귀농운동본부 등 17개 유기종·생협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여성지도자 청와대오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여성지도자 30여 명이 대통령 부인 이회호 여사의 초청으로 4월27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다.

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와 오찬을 함께 한 이회호 여사는 불교계 여성들이 사회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여불련 관계자들은 여성발전기금과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독일 보문사 연등축제

독일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축제가 열린다. 통도사 독일포교인 보문사(주지 병오)는 11일 9시30분 프란츠호프 베르그 옛 동독 중심지에서 벌이는 제등행렬을 시작으로 14일 봉축법요식, 6월1일 한글서예작품 전시회 및 사경법회 등 다양한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보문사는 20일 베를린불교연합회 차원의 봉축문화행사를 마련한다.

도필선 기자

원효성사 1314주기 제향대제

원효성사의 열반 1314주기를 추모하는 '원효성사 제향대제'가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태)과 (사)이차돈·원효양성사불한학회(이사장 해인, 봉찬회) 공동주최로 3일 오전 10시 경주 분황사에서 봉행된다.

원효성사의 제사는 분황사와 봉찬회가 경주지역에서 따로 스님의 시일에 맞춰 모신 것을 올해 처음 공동으로 봉행하게 됐다. 김재경 기자

장기수후원회 홈페이지 개설

불교장기수후원회(삼일대표 성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janggisu.co.kr)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단체 및 비전향장기수 소개, 단체 소식, 회원 동정, 관련 칼럼, 게시판 등으로 꾸며져 있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천태종·진각종·총지종 등 종단들이 북녘동포에게 부처님 오신날을 전하기 위한 전방 OP봉축 점등식을 잇달아 가졌다. 사진은 관음종이 4월25일 열식부대 종각 OP에서 봉행한 점등식행사.

"북녘 동포에게 자비광명을"

전방 OP 초파일 봉축 점등식 잇달아

장병들과 북녘 동포들에게 부처님 오신 뜻을 알리기 위한 불기 2544년 OP점등식이 4월20일 애기봉에 이어 각 종단과 사단 주회로 전방 OP에서 잇달아 봉행됐다.

4월21일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이 종단스님들과 신도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3사단 대동부대 호국동일사에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점등식을 봉행했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25일 육군 열식부대 종각OP에서 연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종정 혜운스님,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총무원장 지성스님 등 관음종 스님들과 신도, 열식부

대 부대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홍파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정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감싸시는 포용력을 가진다면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지종(총무원장 총지화)도 25일 7사단 칠성 전방대에서 연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27일에는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6사단 월정리 전방대, 진각종(총무원장 성초)이 육군 7296부대 509 연꽃전방대, 대한법회총(총무원장 윤경)이 관문점 1사단 도라 전방대, 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이 15사단 아산전방대에서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북한 동포들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기원했다.

이경숙 기자

봉축 소책자 26만권 배포

'부처님 마음으로...' 등 3종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포교 소책자 26만 권이 무료 배포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중산 최초로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주머니 속의 평화> <치유의 손길> 등 3종의 포교 소책자를 대량으로 제작, 전국 300여 사찰과 200개 군법당, 20개 병원에 전달한다.

교구본사 25곳과 직영 및 관할 묘사찰 100여곳, 일반사찰 200여곳에 20만부씩 배포되는 소책자(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는 부처님의 생애, 마음 다스리기의 내용이 실려있다.

200여 군법당에 6만권이 보내질 <주머니 속의 평화>에는 그리움이 사무치고 육신이 고단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글, 위험에 처했



올 때 대처하는 글등의 경전과 법문내용들이 들어있다. 또 치유를 위한 기도와 염불, 간병의 마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치유의 손길> 1만부는 전국 20여개 병원에 배포된다. 김원우 기자

예일대 출신 美 무량스님 남가주 산속 태고사 세워

미국인 스님이 캘리포니아주 중부 테하차피 산중에 한국 전통 사찰 '태고사(Mountain Spirit Center)'를 건립해 화제다.

주인공은 무량(에릭 버릴·41) 스님으로, 4월 22일 한국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 등 한인 스님과 불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 5만평에 건립한 132평 규모인 태고사 개원식 및 불상점안식을 가졌다.

태고사는 무량 스님이 96년 4월 전기 전파 수도 사설이 있는 산속에 천막치고 살면서 미국인

목수 2명과 함께 사진을 놓고 연구해가며 지은 절로 남가주에서는 첫 산중 사찰이다.

예일대학생이었던 무량스님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해 오던 출가를 결심하고 83년부터 5년간 총나예산 수덕사와 군산의 태고사 등에서 수행을 쌓은 뒤 90년 로스앤젤레스 달마선원의 주지로 있었다.

오종욱 기자



은평·성북복지관 가정의 달 맞아 노인 위로잔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은평·성북 교계 노인복지관 두 곳이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펼친다.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어르신 공경과 인간존중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4·6·8일 세 차례에 걸쳐 특별 행사를 갖는다.

4일 은평구 스산 레깅스에서는 지역 무의탁·독거 노인 3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뱃چه 경로잔치'를 열며, 6일에는 대조동 야외 근린공원에서 인근 경로당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야외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어 8일에는 복지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함께 생명존중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생명나눔실천회와 공동으로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서약 캠페인을 벌인다.

한명우 기자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족, 중증, 묘지의 혁신!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며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중증, 탑3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산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명이던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잘된다.
- 화장은 어떤 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이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중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설문서번호	0172542호
의상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함규격(원동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55cm.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중증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사찰경내 영탑공원 영탑주문 환영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소재 가공 및 정모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합자.
- 회합지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파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숙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충남 천안시 임장면 시장로 51-35번지

Tel: (0417)584-6674~6 Fax:(0417)584-2335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금해스님의 여 레 선 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년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종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법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한 밀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 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경,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문 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천견

주 문 신 청 0523)372-1221 / 011)564-1217

- 대 금 : 20만원
-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담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비한 작용

- ◎ 소 재 고금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 그 위에 유리보따
-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450x450c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 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34-9490, 334-9491
야간 : (0342) 706-3060

- 불자본인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복과 재운과 건강을 불려주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